

# 빛의 축제 레이끄라통

글 | 김주영

그림 | 메이모 씨우펀

글 | 김주영

그림 | 메이모 씨우펀 (MEimo Siwaporn - ศิวพร มณีวรรณ)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베트남어 번역 | 황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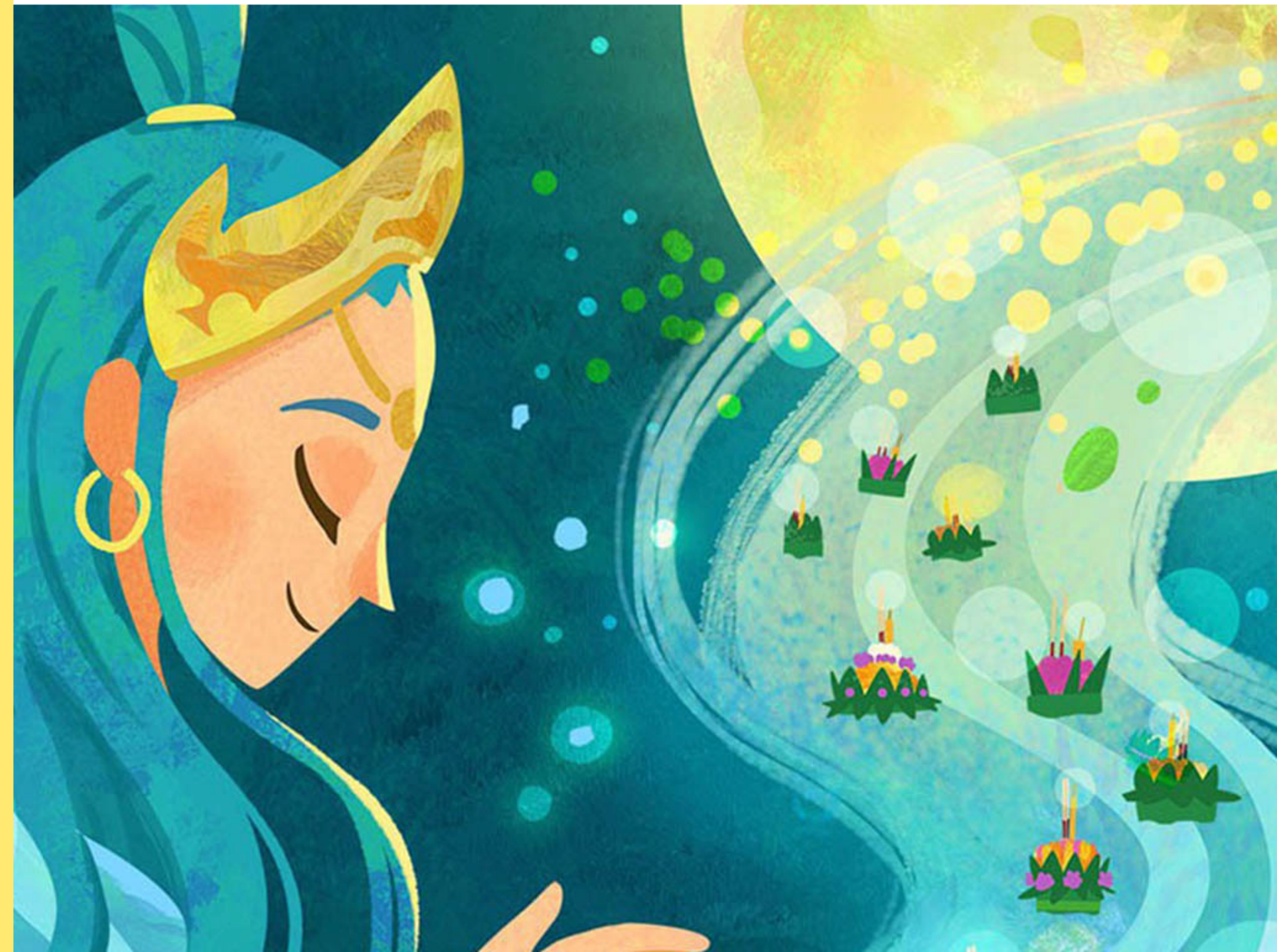
중국어 번역 | Wenting Du, 교정: 이흠

영어 번역 | Jennifer An

태국어 번역 | 김주영, 감수: 분타리카 너이씨 (บุญทริกา น้อยศรี), 교정: 채혜민

목소리 | 한국어: 윤성혜, 베트남어: 레 쉐언 비, 중국어: 곽효여,

영어: 제인 페인터, 태국어: 페와 떼차마하몽콘







태국 북쪽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치앙마이에 자매인 프래와 프리름이 살고  
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던 긴 우기가  
지나고 11월이 되자 프래와 프리름은  
기분이 좋았어요. 중요한 명절인  
‘레이끄라통’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물의 여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기에 많은 비를 내려준 물의 여신을 위해 작은 배를 만들어 강에 띄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어요. 이 작은 배를 ‘끄라통’이라고 하고, 물에 띄우는 것을 ‘러이’라고 해요.





러이끄라통을 맞아 프래네 학교에서는  
끄라통 만들기 대회가 열려요. 프래는  
가족과 함께 끄라통을 만들고 싶어서  
재료를 잔뜩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바나나 나무 줄기와 잎은 예쁜 끄라통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전통적인 꼬라통은 바나나 잎을  
사용해서 연꽃 모양으로 만들어요.  
프래는 부모님과 함께 바나나 잎을 접고  
붙여서 연꽃 모양 몸통을 만들었어요.  
프림도 언니를 도와주고 싶어서 열심히  
접어 보았지만 아까운 바나나 잎만  
계속해서 찢어졌어요.





연꽃 모양의 몸통이 완성되면 꽃잎과 색종이로 꼬라통을 예쁘게 꾸며요. 프래와 프림은 꼬라통을 알록달록하게 장식하고 마지막으로 작은 초와 향을 가운데에 꽂았어요.





대회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끄라통이 나왔어요. 모두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그중에서 6학년 오빠가  
만든 아주 큰 끄라통이 우승을 했어요.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저녁에 열리는  
퍼레이드에 학교 대표로 참여해요.





저녁이 되자 프래네 가족은 퍼레이드 구경을 하러 시내로 갔어요. 치앙마이의 모든 학교와 여러 단체, 회사가 참여하는 큰 퍼레이드였어요.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했어요. 퍼레이드 맨 앞에는 크고 멋진 끄라통들이 있었고, 프래네 학교의 6학년 오빠도 자기가 만든 끄라통 옆에서 행진하고 있었어요.





시내 중심에서는 미인 선발 대회도 열리고 있었어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를 뽑는 대회예요.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 있는 대학생 언니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프래와 프림은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어요.





물 위에는 벌써 꼬라통이 많이 떠  
있었어요. 프래와 가족들도 꼬라통에  
있는 초에 불을 붙여 물에 띄웠어요.  
프래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어요.  
프림은 촛불이 꺼지지 않는까  
걱정했어요. 멀리 떠내려갈 때까지  
촛불이 꺼지지 않아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끄라통을  
띄우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단다.”

이런 믿음 때문에 태국 사람들에게  
레이끄라통은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함께  
끄라통을 띄워요.





아름답게 빛나는 끄라통들을 구경하던  
프래는 먼 하늘에서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별처럼 반짝이는  
것들이 밤하늘을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어요. 하늘에 등불을 띄우는 ‘이뽕’  
축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뽕 축제는 치앙마이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태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 축제를 즐기러 와요. 사람들은 종이로 만든 등에 소원을 적어 하늘로 띄워 보내고, 멀어지는 등불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해요. 등불이 꺼지지 않길,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길.





프레네 가족도 프림만큼 커다란 등에  
소원을 적어 하늘 높이 띄웠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등불이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사람들의 소원을 실은 끄라통과 등불로  
온 세상이 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빛의 축제 레이끄라통”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